

## GWANGJU F.C INFORMATION

### 2011 K리그/리그컵 홈경기 일정 안내

Round	경 기 날 짜	시 간	상 대 팀
1	3월 05일(토)	15:00	대구
4	4월 02일(토)	15:00	포항
5	4월 09일(토)	15:00	상주
리그컵3	4월 20일(수)	19:00	전남
7	4월 24일(일)	15:00	서울
8	5월 01일(일)	15:00	대전
리그컵5	5월 11일(수)	19:00	울산
11	5월 22일(일)	15:00	인천
13	6월 11일(토)	19:00	성남
14	6월 18일(토)	19:00	전남
17	7월 09일(토)	19:00	강원
18	7월 16일(토)	19:00	전북
20	8월 06일(토)	19:00	경남
23	8월 27일(토)	19:00	제주
26	9월 25일(일)	15:00	부산
27	10월 02일(일)	15:00	울산
29	10월 23일(일)	15:00	수원

광주FC

### 2011 K리그 시즌권 판매

#### 회원권 가격안내

- ▶ 일반인(E·W석) : 어른 10만원 / 청소년 5만원 / 어린이 3만원 / 홈경기 모든 게임
- ▶ 서포터즈(N석) : 어른 6만원 / 청소년 4만원 / 어린이 2만원 / 홈경기 모든 게임

#### 회원권 구매안내

- ▶ 온라인 : www.ticketlink.co.kr (신용카드 및 무통장 거래 / 24시간 운영)
- ▶ 오프라인 : 광주FC사무국, 광주FC 각 매표소 (신용카드 및 현금 구입 / 평일 09시~18시 운영)

#### 무료제공 혜택

- ▶ 어른 : 유니폼·리플렛카드(패밀리카드 혜택 포함) 제공
- ▶ 청소년·서포터즈 : 조마 티셔츠·리플렛카드(패밀리카드 혜택 포함) 제공
- ▶ 어린이 : 조마 티셔츠·구단사인볼·짐백 제공

All for one 2011

빛고을

### 광주FC서포터즈

광주FC 공식 서포터즈 빛고을에서 승리의 순간을 함께 즐길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원정경기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바랍니다.  
www.gwangjufc.co.kr



### 광주FC 공식 후원업체 GWANGJU FOOTBALL CLUB SPONSORS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 정상에 등극하라! 경제강국 KOREA!

온갖 악조건과 위기의 상황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용기와 집념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화 -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함께 힘든 경제한파 속에서도 정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제강국 KOREA를 향해 - 다시한번 FIGHTING!

KJB 광주은행

수원권 금융권  
합산자금이 없는 장애인으로 사업성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권  
장애인 지원 장기대출(단기)을 통해  
다산재정립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주은행을 통해  
다산재정립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주은행을 통해

통권 제02호

# VIEW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 4라운드

2011. 04. 02 SAT 15:00 KICK OFF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FC VS 포항 스틸러스

GWANGJU F.C Matchday Program 2011 VIEW-No. 02

○ 발행일 : 2011년 4월 2일 ○ 발행처 : 광주FC 사무국 · 광주광역시 서구 용암동 423-2 월드컵경기장내 프레스센터 2층 · ☎ 062)-373-7733

## POINT of VIEW

관전 포인트 광주FC vs 포항스틸러스

# 광주FC 홈 2연승으로 돌풍 불씨 지핀다

개막전 펠레스코어 승 이후 원정 2경기 석패  
박기동·김동섭 대표팀 배출...팀 분위기 최고조  
무패·무실점 기록 포항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 『3연승vs3연패』 질수 없는 한판

K리그 첫 데뷔전이자 역사적인 홈 개막전을 짜릿한 역전승으로 장식한 광주FC가 한 달여만에 홈 팬들을 찾는다. 상대는 최근 3연승, 3경기 연속 무실점, 올 시즌 무패 등 뛰어난 경기력으로 선전하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신생팀 광주로서는 버거운 팀지만 홈경기라는 이점과 부상선수들의 귀환, 국가대표 공격듀오의 잠정 등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는 최근 겹경사를 맞았다. 먼저 일본무대에서 시련을 겪고 돌아 온 박기동, 김동섭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돼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고 팀으로 복귀했다. 또 광주의 에이스지만 그동안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김은선, 이승기 등의 몸 상태가 좋아지면 서 팀 전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박호진 선수는 이미 수많은 골을 지켜내며 광주의 수문장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최근 휴식기와 팬 사인회 등을 치르며 팀 내 분위기도 달아오고 있다. 하지만 포항의 전력도 만만치 않다. 황선홍 감독 체제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뜨거운 행보를 보이는 수바와 모파 등 K-리그 정상급 용병이 버티고 있다. 여기에 김재성과 노병준 등 잠재력이 있는 국내파 선수도 많다. 박기동과 함께 태극마크를 단 고우열의 상승세도 무시다. 초반 상승세를 지켜내야 하는 포항과 홈 2연승으로 돌풍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광주의 불꽃튀는 대결이 기대된다.

#### 『광주FC 홈 개막전 펠레스코어 승리』

광주는 지난 3월 5일 열린 대구FC와 경기에서 화끈한 공격축

구를 선보이며 '최고의 명승부'를 가르키는 펠레스코어(3 : 2) 승리를 거뒀다. 월드컵경기장에는 2002년 이후 최대 관중인 3만6천241명의 축구팬들이 모여 '나의사랑 광주~'를 외치며 열광했다. 선제골과 짜릿한 역전골을 터트린 박기동과 페널티킥을 멋지게 성공시킨 김동섭은 광주 공격의 핵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광주는 3주 동안의 원정에서 3패를 기록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수원전은 전반 25초(역대 7번째 최단시간 골) 김동섭의 번개 같은 슈팅으로 기세를 잡았지만 후반 프리킥과 페널티킥을 내주며 석패했다. 울산전은 전반 35분 김동섭의 환상적인 골로 줄곧 경기를 리드했으나 후반 페널티킥과 프리킥을 내주면서 승리의 깃발을 내렸고, 리그컵 첫 상대인 강원에게는 5골이나 내주며 패배의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그리고 매 경기마다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이 불거졌지만 선수들은 "다음경기에서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말로 분루를 삼켰다.

#### 『팬들이 뽑은 올 시즌 다크호스 광주』

올 시즌 가장 주목해야 할 K리그 다크호스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광주FC가 당당한 1위를 차지했다. 축구전문지 베스트 일레븐(www.besteleven.co.kr)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가 지난 3월 10일부터 일주일간 공동으로 실시한 '올 시즌 가장 주목해야 할 K리그 다크호스는?'이라는 설문조사에서 광주는 전체 참가자 3,285명 가운데 18.2%(597명)를 차지해 팬들로부터 가장 주목해야 할 팀으로 꼽혔다.

지난 홈 개막전에서 대구를 상대로 펠레스코어 승리를 장식한 광주는 강호 수원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신생팀의 패기를 확

하게 선보였다. 특히 김동섭 선수는 경기시작 25초만에 상대 수비의 실수를 틈 타 올 시즌 K리그 최단시간 골을 뽑아내는 등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비록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최만희 감독이 말하는 '재미있는 축구, 근성있는 축구'가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다. 많은 축구인들은 마음은 막내 같지 않은 막내구단 광주의 당당하고 화끈한 플레이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 『박기동·김동섭 국가대표 발탁』

신생구단 광주가 두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경사를 맞았다. 주인공은 광주의 공격듀오인 박기동과 김동섭. 둘은 일찌감치 능력을 인정받아 일본 J리그에 진출했지만 낮은 환경에서의 적응실패로 큰 아픔을 맛 본 뒤 K리그로 유턴했다. 갖 창단한 광주는 두 선수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고, 다시 기회를 얻은 이들은 최고의 경기력으로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그리고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구거전 자존심을 완벽하게 회복했다. A매치에 처녀출전한 박기동은 경기에 투입된 시간이 5분여에 불과했지만 다음날 대구와의 연습경기에서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활약했고, 이미 청소년대표로서 많은 경험을 가진 김동섭은 전반 13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골 감각을 과시했다. 두 선수의 활약은 구단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16개 구단 중 평균 나이가 가장 적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태극마크를 단 두 공격듀오의 힘과 팀 내 망명 박호진의 경험, 부상에서 돌아온 이승기, 김은선 등의 안정적인 플레이와 맞닿으며 조직력이 수직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